

신한 뉴스톡 190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7
05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Issue 1 - 경기 북부 문화창달의 메카 동두천

Issue 2 - 제1회 2017 신한빛·벗 축제

Issue 3 - '신한을 전시하다' 키텍스 경향하우징 리빙디자인 페어

- 동기유발학기 CCM 경연대회
- 교양과목의 새 지평을 열다
- 3년 연속 경기 북부 정시지원률 1위
- 국제어학과 취업률 전국 2위
- 행복기숙사 건립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김경표 원장
신평장학회 김종복 회장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특독'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김병욱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17.05.24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박은영 기자
- 디자인 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2 325 3405 • 정가 8,000원

Contents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신한 The 쎬세이션
- 04_지역사회와 신한
- 06_경기 북부 문화창달의 메카 동두천
- 10_제1회 2017 신한 빛·벚 축제
- 16_도시재생 그라피티 동두천
- 20_‘신한을 전시하다’ 경향하우징 페어
- 24_SHINHAN University Vision
- 26_동기유발학기 CCM 경연대회
- 28_2017학년도 입학식
- 30_교양과목의 새 지평을 열다
- 32_3년 연속 경기 북부 정시지원률 1위
- 34_국제어학과 취업률 전국 2위
- 36_행복기숙사 건립
- 38_김경표 원장 인터뷰
- 42_신평장학회 김종복 회장 인터뷰
- 46_Super-Versity
- 48_이모저모
- 52_대학발전기금
- 54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17 수시모집 3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 The 썬세이션! 신한대학교, 경기북부대학의 정상에 서다!

Best University

- 교양과목의 새 지평을 열다
- 3년 연속 경기 북부 수시지원율 1위
- 기숙사 건립, 발전하는 학생복지



Global University

- 지역사회와 신한: 경기북부 대학문화의 선두
- 신함을 전시하다! 킨텍스 경향하우징 리빙디자인페어



Student's Power

- 국제어학과 취업률 전국 2위
- 동아리연합회 동고동락의 도약, 제 1회 동아리 박람회개최
- 공연동아리연합 신입생활영공연 <ASH>



지역사회와 신한 신한대학교, 경기북부대학의 선두에 서다!

2014년, 경기북부 의정부소재 신한대학교와 동두천 소재 한북대학의 통합으로 신한대학교는 4년제 대학으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다. 2017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3년 연속 경기북부 수시지원율 1위라는 쾌거를 거두며 명성을 높였다. 경기북부 4년제 대학으로써 그 문화와 발전을 주도해왔다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해온 것이다.

신한대학교는 개교 이후부터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교류를 해왔다. 최근 사업을 살펴보자면, 지난 2월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한대학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구 영어마을 파주캠퍼스)에서 현장실습을 통한 학점인증 인턴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3월에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신한대학교와 더불어 경기북부가 함께 발전해 나갔다. 대학과 그 지역사회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학은 공간·시설, 지식·인적,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교육, 연구, 봉사의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설립된다. 최근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사람들은 대학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과정에서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대학교는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에 위치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활동을 어떻게 활용·실현·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신한대학이 경기북부 1위 대학으로 자리를 굳힌 시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전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본다.

〈박은영 기자〉



경기북부 문화 창달의 메카 동두천!!
**한반도와 경기북부,
 그 중심에서 동두천은?**
*Mecca Dongducheon of
 Gyeonggi Northern Culture*



문화 창달, 문화를 쑥쑥 뻗어나가게 함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도 그 역할을 해내는 지역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동두천은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우리의 문화를 뻗어나가게 하고 있는 문화 허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미래의 희망과 행복의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도시, 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 일자리 많고 살맛 나는 지역개발의 핵심도시로서 삶의 질이 최고인 행복한 두드림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동두천은 '두드림 동두천',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희망차고 미래있는 문화도시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다. 시민의 '살맛'을 생각하는 도시, 문화를 생산하고 전하는 동두천을 살펴보자. 동두천은 신한대학교 2캠퍼스 소재지로, 경기북부 중심에 위치하며 경기북부 문화 창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역사회는 그들이 가진 자본을 활용해 문화를 생산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동두천은 그들의 자본을 시민과 국가의 문화생산과 창달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동두천의 지난 발자취가 앞서 언급한 수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경기북부를 넘어 세계로, 동두천의 국제교류

동두천은 경기북부와 한반도를 넘어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해왔다. 중국 삼문협시, 베트남 빈롱시와 자매도시를 결연했으며 일본 시마다시, 미국 미시건주 사우스필드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7년도부터 전개되어 온 이 사업은 경기도 면적의 0.9%밖에 되지 않는 도시가 이뤄냈다는 것에 더욱 놀랍다. 가장 먼저 국제교류를 했던 도시는 중국의 삼문협시다. 2007년 삼문협시와의 자매결연 희망 서한문을 시작으로 동두천 실무단의 중국방문, 중국 삼문협시 실무단의 동두천 방문으로 이어졌다. 중국 삼문협시 대표단이 농업교류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동두천 청소년예술제에 참석하는 등 중국 삼문협시의 방문·교류를 통해 문화교류를 했다. 뿐 만 아니라 동두천 공무원이 중국 삼문협시에 방문해 홈스테이를 하며 중국의 공무원 업무에 대해 배워왔고,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협의하기도 했다.



국제교류사업은 중국 삼문협시를 이어 일본과 베트남까지 뻗어나갔다. 2010년부터 일본 시마다시, 베트남 빈롱시와 우호도시 합의를 체결하며 문화교류에 박차를 가했다. 베트남 저소득층 학생을 후원하고 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베트남 청소년 교류단을 동두천에 초대해 청소년 예술제에 참석 시키는 등의 문화교류를 했다. 베트남 빈롱시와 함께 병행했던 일본 시마다시와의 교류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시마다시 의회의 동두천 방문을 시작으로 유소년야구교류를 추진하고 각 국가의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며 시민문화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중국과 베트남 일본을 넘어 국제교류사업은 제1강대국 미국까지 이어졌다. 동두천 대표단(시장 외 5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양시 도서관내 도서를 기증하고 사우스필드시 시장과 대표단이 방한해 동두천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두천의 문화 창달은 경기북부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한반도와 경기북부 중심부에서 문화 생산과 재창조가 이뤄내는 동두천의 문화교류사업이 앞으로도 순탄하길 바라며 신한대학교 제2캠퍼스와 동두천의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동두천시 시민을 위한 문화의 도시

최근 동두천은 '동두천 두드림 희망센터'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를 발대, 지역청소년동아리를 통해 봉사의 기회를 가졌다. 또 자투리땅을 활용해 '꽃의 도시'를 조성하는 등 시민과 경기북부 도민을 위한 복지와 문화발전을 이뤄내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봄을 맞아 꽃의 도시와 함께 피어오를 동두천의 미소가 기대되는 순간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처가 시급해지며 재난대비에 대한 실태가 수면위로 떠오른 시점이다. 이에 대비해 동두천 내 전체 상수도시설을 대진단하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합동해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에도 힘을 쓰며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의 모습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한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출범을 통해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새롭게 출발하기도 했다. 가족복지 허브기관의 체계를 갖추고 가족관계, 가족생활, 취약가족 돌봄 및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문화의 기반을 다졌다.



기반이 튼튼한 구조가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사회의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발전의 정도가 다져졌다는 것이다.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발전을 이루고난 후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동두천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그들의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시민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사회로써 문화 창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두천의 향후 사업을 기대해 본다.

사진협조 - 동두천시청 전자북 '동두천 사랑'
<박은영 기자>



신한 빛·벚 축제

대학과 지역이
함/께/가/기
다른 나라 문화
이/해/하/기

제1회 2017 신한 빛·벚 축제
동두천 캠퍼스에서 대성황!
신한대학교는 '역시 경기북부 중심대학' 입증



빛, 벚꽃 그리고
선율의 축제를 만끽하세요~



신한대학교가 '문화와 예술, 사람과 사람'을 주제로 개최한 제 1회 2017 신한 빛·벚 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전시 프로그램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장식되어 신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동두천 시민들과 다문화 가족까지 함께 하는 새로운 축제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의 여러 행사 중 푸드트럭은 신한대학교 대학생창업 지원사업인 '신한벤처산업' 중 식품영양전공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름은 '나이스스테이크'이다. 푸드트럭의 메뉴는 타조 스테이크 하나와 에이드 하나였다. 하지만 푸드트럭이 도착해 준비할 때부터 학생들은 언제 영업을 개시 하냐고 물으며 주위에서 서성이기도 했다. 나이스스테이크가 문을 열자 학생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다. 나이스 스테이크 사장님

의 화려한 플람베 퍼포먼스와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는 눈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고, 스테이크의 맛은 줄을 서 기다린 학생들의 혀를 만족시킨 것 같았다. 세계 차 체험 역시 준비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세계 차 체험은 동아리 '마이버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다른 과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끼며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세계 차 체험에서 마이버디 학생들은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울무차, 대추차, 유자차, 아이스티 등 여러 종류의 차들을 맛볼 수 있었다. 한국의 차 종류가 많은 만큼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동두천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운영본부 측은은 본 축제에 대해 '학생과 의정부시 모두 힘을 합쳐 진행된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여러 체험 부스를 진행하며 민속놀이 체험이나 세계의 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번 축제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체험부스를 방문하였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의정부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다양한 전통 의상을 마련하고 전시하여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입을 수 있는 코너가 인기를 끌었다. 전통의상 체험 부스 진행자들은, 각 의상을 입는 국가와 그 국가가



왜 그런 의상을 입게 되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세계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진행되어,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7일에는 공연부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10시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장기자랑을 진행하였다. 말하기대회에서는 사스리랑카 출신의 '시시니' 학생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장기자랑에서는 스리랑카 출신의 '자간' 학생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오후 2시가 되자 야외 공연장에서 일본 전통춤과 난타 공연이 시작되었다. 일본 전통춤 공연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전통 의상과 춤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었고, 뒤이어 진행된 난타공연은 한국 고유의 경쾌한 리듬과 멋을 느낄 수 있었다.

두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뒤이어 진행될 공연을 소개하기 전 진행자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이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가기 힘든 곳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진 예술단'이라는 소개로 북한 이탈 이주민으로 구성된 임진강예술단의 공연시작을 알렸다. 이 공연을 통해 진행자의 소개 멘트처럼 가장 가깝지만 가장 가기 힘든 '북한'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처한 안타까운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그로 인해 우리가 이뤄가야 할 우선의 일은 통일이라는 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북한의 전통 의상과 춤, 악기 등을 직접 눈으로 담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K-POP과 학생들과 힙합동아리 악당의 무대가 펼쳐졌다. 예정되었던 5시보다 늦은 시각에 시작된 공연은 손이 차게 얼만큼 추운 날씨에 이루어졌지만, 학생들은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최선의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댄스공연과 축제 콘셉트인 벚꽃과 빛에 맞추어 구상한 음악공연으로 꾸며졌다. 공연에 참가한 학생들은 축제의 주제가 문화와 예술, 사람과 사람인 만큼 직접 창작한 무용 및 안무와 어쿠스틱 악기와 보컬의 조화로 구성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마지막 빛·벚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카잘스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시작되자 신한대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신홍중·고등학생들, 동두천시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늦은 저녁부터 시작된 카잘스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야외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불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악기와 목관악기로 이루어진 이번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일반 협주곡뿐만 아니라 국악도 연주하여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 이번 공연은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의 선율을 따라 관객들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전시 코너와 예술 문화 공연으로 단장한 '제1회 2017 신한빛·벚 축제'는 참가자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되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빛·벚 축제를 체험한 한 학생은, '이번 축제가 단순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사진협조 - 제1회 2017 신한 빛·벚축제 사진콘텐츠수상작
<박미소 기자>



**보산동에서
그래피티를
만나다**

보산동의 거리 모습이 변하고 있다. 이국적인 거리의 풍경을 연상케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 외국음식 레스토랑, 그리고 영어간판들과 함께 역동적인 스타일의 그래피티가 한데 어우러져 보산동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새롭다기 보다는, '동두천다움'이 더 잘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보산동. 그곳이 그래피티의 옷을 입으며 더욱 이국적인 정취를 풍기고 있다.

뉴욕이나 파리, 런던과 같은 외국 유명 도시의 젊음이 있는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피티들처럼, 보산동의 그래피티도 젊은 감각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힙합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써내는 역동적인 그래피티가 보산동의 벽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보산동이 그만큼 아직 젊다는 뜻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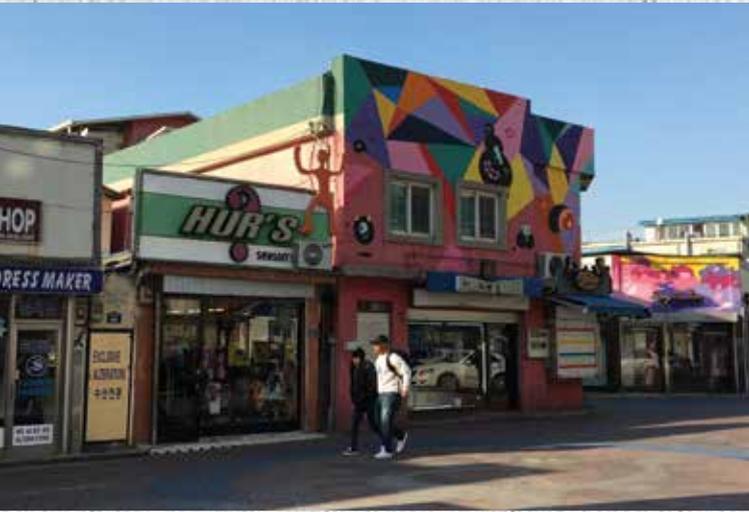


**식상하지
않은, '색을
입은 도시'**

보산동의 그래피티는 동두천시가 보산동 관광특구 일대에 테마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의 성과 중의 하나다. 지난 2016년 8월에 경기도미술관의 주관 하에 진행된 보산동 그래피티 작업에는, 국내작가 정주영과 국내 그래피티 1세대 작가 최진현 등의 유명 아티스트는 물론이거니와 태국의 라키티나 러시아의 파사와이즈, 브라질의 알렉스세나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쟁쟁한 작가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정주영 작가는 한국의 도깨비를 익살스럽게 캐릭터화 한 작품을 선보였고, 최진현 작가는 '동두천'을 한글 레터링으로 표현한 작품과 유명 대기업의 국제광고를 희화화한 작품을, 라키티 작가는 보산동을 지킨다는 의미로서의 곰을 작품화하였으며, 파사와이즈 작가는 보산동관광특구거리에서 추출한 컬러를 기하학적으로 배열한 작품을, 그리고 알렉스세나 작가는 사랑을 주제로 삼아 자신만의 작품을 그려냈다.





동두천, 거리예술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진행

동두천시 보산동은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전인 1950년대 이후부터 미군을 주 고객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창구역할을 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K-Pop, K-Rock의 발원지로 성장하였으며,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에 관광특구로 지정고시 되었다. 하지만 미군 재배치로 인해 주 거주지가 도시 외곽에 집중되는 이른바 지역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그와 함께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동두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라피티 테마 거리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보산동의 그라피티 테마 거리 조성사업은 동두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두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된 '도시재생 및 동두천시 브랜딩 전략'으로서 그라피티 활용 방안 연구에서는 '미군'이라고 하는 정체성 형성 요인에 주목하면서 그라피티를 원도

심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동두천시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미술 조성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이를 위하여 기존 공공미술과는 차별화된 스트리트 아트를 주된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시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적 혹은 이국적으로 대표되는 보산동의 분위기를 잘 대변하며,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긍정적 에너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그라피티인 것이다. 그라피티가 보산동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포용성, 개방성, 역동성을 지닌 이미지로서 주목을 받으며,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의 방법으로 삼은 그라피티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동두천시는 그라피티를 계속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일부는 기존 그라피티와 연계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홍보효과가 큰 장소에 조성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이를 통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체험을 통해 실감하는 도시재생

지금도 1호선 보산역에서 내리면, 역사 안에서부터 창 밖에 펼쳐진 그라피티를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보산동의 그라피티 작업은 아직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다. 비록 완성된 작품처럼 보이나, 동두천시의 사업계획과 같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속 펼쳐질 것이다. 아직까지 동두천은 관광지로서 그리 유명한 편은 아니나,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보산동을 방문하여 새로운 동두천을 느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낯선 이국의 경취가 느껴지는 그라피티를 배경삼아 걸어도 보고, 보산동에서만 즐길 수 있는 타국의 음식도 즐기며 말이다.

〈산업디자인과 임병우 교수, <박현규 기자〉

Graffiti



빛나는 신한대학을 전시하다!

S H I N H A N U N I V E R S I T Y

디자인학부 경향하우징페어 출품
‘빛나는 신한’ 이미지를 알리다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KINTEX 제1 전시장에서 열린 2017학년 KINTEX 경향 하우징페어, 리빙 앤 라이프 스타일(Living & Lifestyle) 페어에 홍보 부스와 함께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2015년도부터 꾸준히 참여하여 이번이 세번째 참여가 되는 이번 전시는 신한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장이 되었다. 이번 작품 전시는 디자인학부와 이선민 교수의 지도 하에 디자인 학부 3학년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간디자인을 전공하는 안수정, 유재윤, 윤수빈, 이가영, 정동길, 정범선, 허윤재, 차호현, 홍슬기 등 9명의 학생이 겨울 방학 내내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전시의 개념은 신한의 각기 다른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모여 빛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전개된 것이다. 같은 듯 서로 다른 신한대학교 디자인 학부의 3개 전공이 하나로 모여져 ‘빛나는 신한, 미래의 신한’을 상징하고 있으며 전공 학생들의 꿈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임을 전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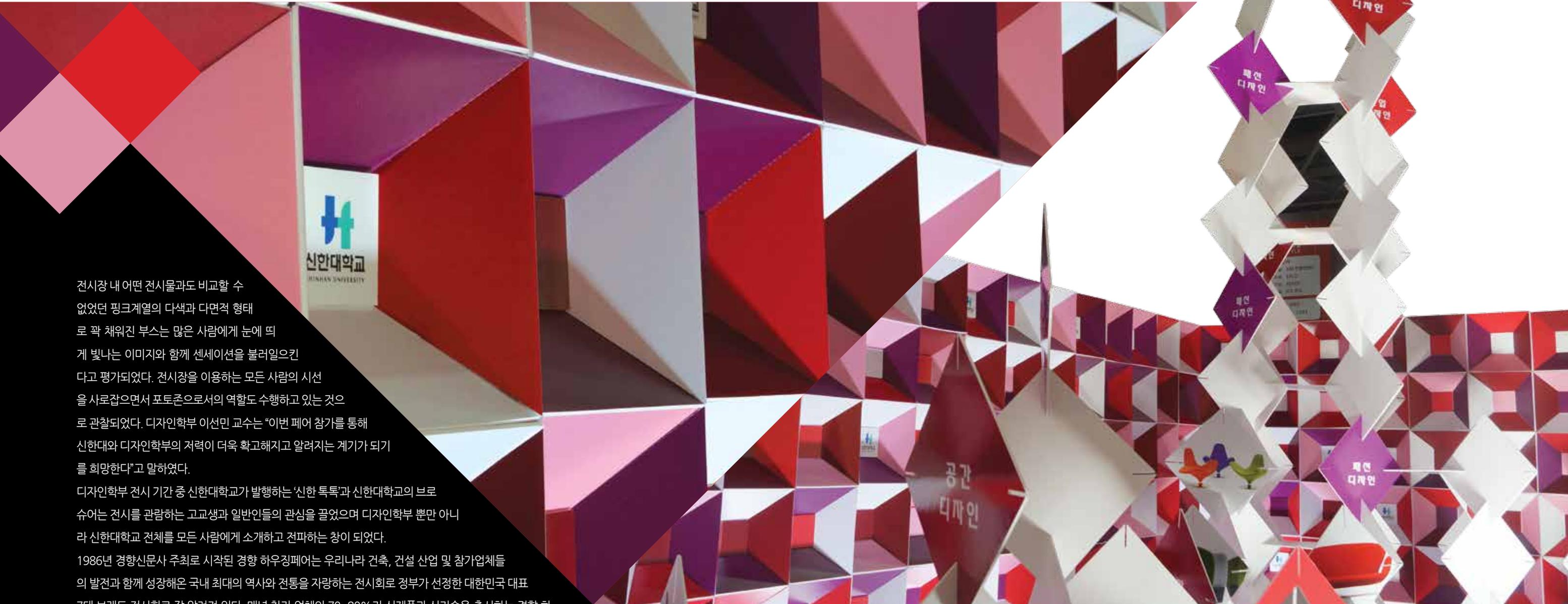


전시장 내 어떤 전시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핑크계열의 다색과 다면적 형태로 꽉 채워진 부스는 많은 사람에게 눈에 띄게 빛나는 이미지와 함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고 평가되었다. 전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포토존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디자인학부 이선민 교수는 “이번 페어 참가를 통해 신한대와 디자인학부의 저력이 더욱 확고해지고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디자인학부 전시 기간 중 신한대학교가 발행하는 '신한 특집'과 신한대학교의 브로슈어는 전시를 관람하는 고교생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디자인학부 뿐만 아니라 신한대학교 전체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는 창이 되었다.

1986년 경향신문사 주최로 시작된 경향 하우스페어는 우리나라 건축, 건설 산업 및 참가업체들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국내 최대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시회로 정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7대 브랜드 전시회로 잘 알려져 있다. 매년 참가 업체의 70~80%가 신제품과 신기술을 출시하는 경향 하우스페어는 업계 관계자와 건축,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할 전시회이다. 전시회에는 주로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등 소프트웨어 관련 아이디어와 제품이 전시되었다. 특히 경향 하우스페어는 2013년도부터 인도네시아의 최대 건축전시회 'INDO BUILDTECH', 유라시아 신흥 시장인 터키 최대 건축전시회 'TURKEY BUILD' 등 해외 우수 건축박람회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로서 앞으로 우리 신한대학교가 국제적인 식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이민영 기자>





Shinhan University Vision

신한대학교 인재상

-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 양성
- 사랑과 봉사의 사명인
- 지성과 창의의 실용인
- 소통과 공감의 세계인
- 도전과 발전의 학습인

Start New-versity

- S _ 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 T _ 재능(Talent)을 함양하는 New-versity
- A _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 R _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 T _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신한대학교의 4S 파워

- **Spirit** : 기독교 정신의 섬김을 통한 영성교육
- **Service** :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나눔교육
- **Synergy** : 통합과 융합의 새로운 창조교육
- **Specialization** : 특성화와 차별화된 전문교육

신한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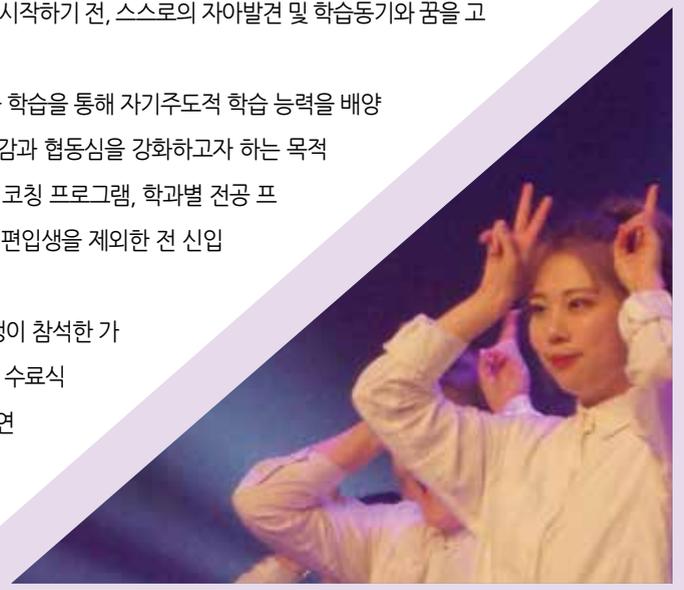


2월 22일부터 3월 3일 총 6일간 신한대학교의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동기유발학기란 신한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특별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신한대학교만의 특성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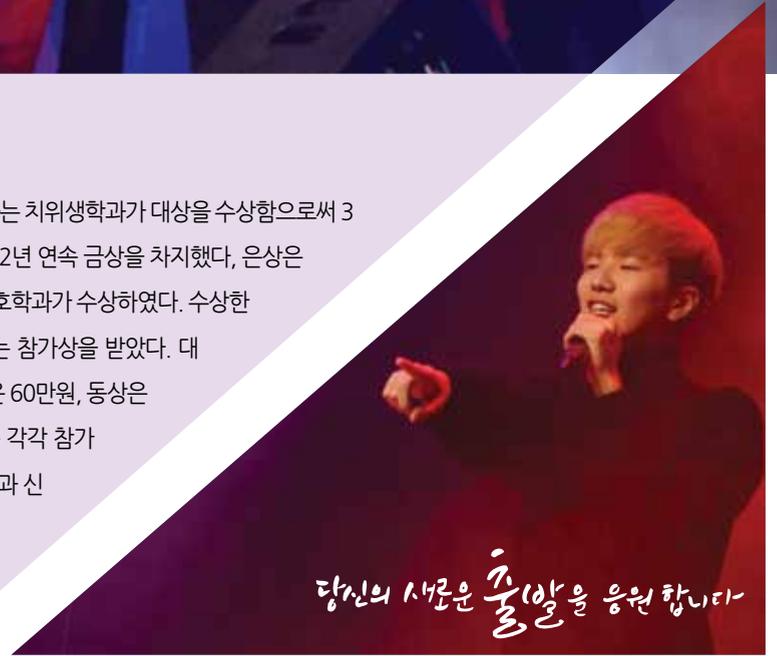
신한대학교의 동기유발학기는 신입생들이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의 자아발견 및 학습동기와 꿈을 고취하고 대학생활에 자연스러운 적응을 유도한다.

또한 전공 관련 기초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사전 이해와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CCM 경연대회 등을 통해 교직원과 선후배, 동기간의 유대감과 협동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기유발학기는 명사 특강, 학교생활 적응 검사, 코칭 프로그램, 학과별 전공 프로그램, CCM 경연대회로 총 5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편입생을 제외한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날인 3월 3일 김병욱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동기유발학기를 마무리하는 CCM 경연대회 및 수료식이 의정부 캠퍼스 도봉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공연 예술학과 최형빈, 장재호 학생이 진행을 맡았고, 김병욱 총장의 격려사와 공연예술학과의 축하공연, 학과별 경연, Cross KC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 20여개의 학과가 참가한 CCM 경연대회의 시상결과는 치위생학과가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고, 유아교육과가 2년 연속 금상을 차지했다, 은상은 국제어학과, 동상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인기상은 간호학과가 수상하였다. 수상한 학과를 제외하고 CCM 경연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과는 참가상을 받았다. 대상은 상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금상은 80만원, 은상은 60만원, 동상은 50만원, 인기상은 3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15개 팀은 각각 참가상으로 20만 원씩을 받았다. CCM 경연 대회는 재학생과 신입생의 협동으로 준비하였고 그 과정과 경연대회를 통해 선후배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협동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 아래 진행되었다. 이로써 6일 동안 이루어진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은 CCM 경연대회와 동기유발학기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동기유발학기 기간 동안 신입생들이 이룬 목적과 가치를 가슴 속에 새기며 신한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이 마음가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한국인으로서의 도약을 맺은 2017학년도 신한대학교 입학식!

2017학년도 신한대학교 입학식이 2월 27일 의정부 제1캠퍼스 도봉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신입생은 4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7개 단과대학(사회과학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자연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디자인예술대학), 21개 학과로 신입생 총 정원은 1,591명이다. 진행된 입학식 현장은 딜라이브의 서울경기 케이블 TV에 보도되기도 해 신입생들과 지역인사,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한 입학식의 분위기를 좀 더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들은 수시 일반 전형과 정시 일반 전형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한 우수한 학생들로 수도권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신입생들은 전형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이라는 값진 영예를 안게 되어 신한대학교에 입학한 의미가 더욱 더 크다.

입학식에는 신홍학원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 김병욱 총장, 이채락 이사장 등의 학교 관계자들과 이성인의 정부 부시장, 문병선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과 의정부시의 지역인사들 및 김민호 1군단 참모장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군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신입생들의 '신한인'으로서의 도약을 다함께 축하했다.

정성호 국회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성형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서울 경기 지역 인사들 및 시어도어 마틴 미2사단장, 이종찬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장 등 신한대학교를 주목하고 있는 많은 외부 인사들이 신입생들의 입학에 축하하는 동영상 보내왔다. 또한 김용용, 주영훈 등 많은 신한대학교 교수진들도 함께 신입생들을 축하하며 응원했다.



입학식의 순서는 안현수 목사의 성경 봉독으로 시작해 김병욱 총장의 신입생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과 환영사, 내빈 축사와 동영상,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곧이어 박종선 목사의 축도를 시작으로 열린 2부 행사의 축하공연에서는 5사단 군악대와 공연예술학과 이현숙 교수 등

이 무대와 함께 신입생들의 입학에 축하했다. 김병욱 총장은 환영사에서 신입생들에게 인생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의 창의적인 사고와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 거

듭나기를 바라면서 '신한국인'으로서의 자세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수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행된 입학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한대학교에서의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수경 기자>

New Start!



신한대학교 교양 교육의 새 지평을 열다 신한 교양 교육의 목적과 가치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부터 신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인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에 적합한 교양 교과목들을 개설했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와 끊임없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 문명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감성은 안타깝게 사라져 갔다. 이른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신한대학교는 본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기독교 정신의 함양과 사랑, 봉사의 사명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 교양 교육과정에 채플, 미션채플, 기독교의 이해, 사랑 나누기, 희망 나누기, 재능 나누기, 인권과 정의, 인류사회와 불평등, 시민사회와 NGO, 현대사회와 복지, 현대인과 사회, 상당학개론, 다문화 사회와 교육, 다문화사회의 리더십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학생들은 교과목들의 이수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사명을 실현하고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역량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English Reading&Listening(1), (2))와 중국어(중국어회화(1), 중국어회화(2)), 일본어(일본어 초급, 영상 일본어), 스페인어(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문화권의 이해, 러시아의 문화와 영화, 중국문화와 예술, 문화와 역사의 이해, 대중문화의 이해, 영화로 이해하는 음악, 대중음악과 문화, 도자공예와 문화, 영화로 이해하는 스포츠, 영미산문기행, 여성과 문학이야기, 건축과 문화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신한대학교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신한인에게 언어와 문화만큼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합리적 수용력 및 중재력 함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말과 글쓰기,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글로벌시대의 인간관계, 공동체의 형성과 소통, 설득의 심리학, 리더십코칭,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다문화사회의 리더십,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코칭, 국제정치학개론, 비즈니스

스 에티켓, 문화와 국가브랜드, 상당학개론, 젠더와 문화, 성과 사회, 현대시민의 생활과 법, 현대사회와 행정, 가정과 결혼, 계약의 법칙, 지방행정과 주민생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한 오늘날에는 분야별로 특화된 인재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통섭적 사고력과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춰 새로운 발상을 해내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문화인류학의 이해, 고고학, 철학, 역사의 재조명, 사회조사방법론, 한국문화 낚설게 보기, 신문기사읽기, 글로벌 문화레저론, 청춘의 책임기, 문화와 국가 브랜드, 지식재산권의 이해, 유쾌한 테마여행, 혁신과 기업가정신, 시장경제의 이해, 기업경영의 이해, 경영전략, 회계원리의 이해, 마케팅의 이해, 현대 식품산업의 이해, 매스컴과 현대사회, 현대사회와 복지, 현대도시의 이해, 도시정책, 도시개발의 이해, 건축도시역사, 도시건축개론, 물과 도시, 물과 우리의 미래, 정보기술과 미래사회, 컴퓨팅적 사고,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해결, 예술의 이해, 음악의 이해, 뉴스포츠의 이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한국미술사, 미술치료, 디자인 트렌드

등 인문, 사회, 역사, 과학, 예술 분야의 주요 핵심 교과목과 융복합 교과목을 교양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자기 주도 미래설계 능력 및 자기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비전설계와 진로, 직업과 진로탐색, 여성커리어 개발, 혁신과 기업가정신, 시장경제의 이해, 기업경영의 이해, 경영전략, 마케팅의 이해, 현대인과 사회, 정보기술과 미래사회,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MOS파워포인트, MOS엑셀, MOS액세스, MOS워드, 재미있는 건강생리학, 인간발달과 학습지도, 예비 부모교육, 인간의 삶과 힐링, 음악과 힐링, 16일의 음악여행, 생활과 취미, 운동과 영양,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체중조절과 맞춤형식단, 안티에이징, 바디발란스, 요가, 필라테스, CPR/응급처치, 재미있는 면역이야기, 실전골프, 초급테니스 등의 교과목을 개설했다.

신한대학교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인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인문학의 수업도 중요시 여기며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양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Open a new foundation
for liberal arts education

SHINHAN
UNIVERSITY

2



3년 연속 북부 최고 지원을
신한대학교 2017년 수시모집

10.54 vs 1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욱)가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또 다시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해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39명(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제외) 모집에 1만 946명이 지원해 10.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 8.23대 1보다 더 증가한 자체 최고 기록으로 2014년 종합대학 개교 이후 3년 연속 경기북부 대학 중 최고 지원율을 보인 것이다.

또한,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원 내 인원 960명 중 899명이 등록해 93.65%의 등록률을 기록하여 3년 연속 등록률 90%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수시모집 일반 전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으로 33명 모집에 1,129명이 지원하여 34.21대 1의 경쟁률을, 간호학도가 19.18대 1을, 치위생학도가 18.33대 1로 뒤를 이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방사선학도가 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치위생학도가 31.5대 1로 전년도 4.4대 1 대비 대폭 상승한 기록을, 에너지환경공학도가 20.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복수지원 가능으로 지원 대상학도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공가치를 창출하는 취업 명문 대학을 지향하는 특화된 교육시스템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성 입학처장은 "수험생이 오고 싶어 하는 실용학문중심 학과로 편성된 점, 찾아가

는 입시설명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 등 적극적인 대학 홍보 전략이 신한대학교가 경기북부 최고의 수시 경쟁률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대학 수시 경쟁률은 신한대학교에 이어 예원예술대학교,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경동대 양주캠퍼스, 대진대가 뒤를 이었다.

<김민지 기자>



전국 2위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취업률



신한대 국제어학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고등기관 취업률 통계 분석에서 취업률 80%로 전국 어문계 학과 중 취업률 2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1위인 고려대(81.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취업률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했다. 취업률 80%는 군 입대와 대학원 진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100% 취업을 의미한다.

국제어학과만의 '취업돌풍'은 조속희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뭉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국제어학과가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역점을 두는 부분은 국제어능력 배양 및 산업체 현장 경험과 인성교육이다. 이에 따라 국제어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영어와 중국어 어학능력 및 문화 간 소통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체 현장경험을 위해서 실용성에 중점을

둔 전공수업과 현지학기제, 국내외 인턴십, 전공학술제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영내에서 근무하는 인턴십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단기 해외유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취업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성교육은 학과 북 카페를 통한 독서의 생활화와 학과 내 봉사활동(mentoring, peer-tutoring 등)과 학과 외 봉사활동(주한미군 Head Start 프로그램 봉사, 지역사회 어학체험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대사관에 조기취업 한 주현선 졸업생이 좋은 예이다. 국제어학과가 지향하고 있는 취업교육 방향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주현선 학생은 재학 중인 2014년 3월부터 6개월간 중국 청도대학교에서, 2014년 8월부터 6개월간은 중국 북경 사범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국내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두리안 C&M에서 마케팅부의 인턴으로 근무하였으며, 전공학술제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 패러디 영상 제작을 맡아 중국어 번

역작업을 하는 등 학교와 학과에서 제공한 기회를 활용하여 어학실력 향상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 결과 新HSK 6급(2015)과 TOEIC Speaking 6단계(2016)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학교와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기회를 잘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주현선 학생 뿐 아니라 다른 졸업생들의 경우도 현재 다양한 직종에 진출하였거나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열심히 면접을 보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국제어학과 조속희 학과장은 성공적인 취업이 되도록 졸업생 및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소 기자〉



SHINHAN UNIVERSITY

신한대학교 행복기숙사,
재학생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동시에 잡아

지난 12월 26일 신한대학교는 재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기공식을 가지며 그 첫 삽을 떴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면학여건 확보를 위해 1캠퍼스 부지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수의 대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합 숙소 형태의 행복기숙사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 날 신한대학교 행복기숙사 기공식에서는 김병욱 총장이 “이 기숙사가 강의실을 넘어 새로운 교육,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신한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은 현재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 수준으로 매우 낮아 지방출신 대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외 원룸에 거주하는 등 거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고려했다. 행복기숙사는 올해 8월 말 완공 예정으로, 2학기부터 학생들의 빠른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축하는 기숙사는 의정부캠퍼스 언약의 교회 앞 부지에 지상 5층 1,288평 규모로 지어진다. 총 100실, 200명 수용 규모로 건립되며, 2인 1실로 이루어져 4인 1실이었던 기존 기숙사보다 쾌적한 환경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력 단련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열람실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관련시설과 특별 남녀 학생휴게실 등의 최고 수준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행복기숙사가 건립되면 신한대학교 입주 학생들의 부담은 낮아지며 강의와 거주가 바로 연결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입학학생과 연계한 특강 등으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행복기숙사 건립은 기존 기숙사로는 부족했던 수요를 늘려 불편을 해소하고 명문대학으로 가는 학생 복지의 일환이다. 또한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미래를 빛낼 수 있는 인재로 나아갈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학생 주거 공간 문제 해결과 학생 복지 증진뿐 아니라 신한대학교의 경쟁력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소영 기자〉



● ● ●
현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재직 중인 김경표 원장을 원장을 만났다. 김경표 교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광명시의회 의장을 전국 최연소로 역임했고, 메가시네마 대표이사,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검도연합회 이사와 한국민족문화협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사회적기업 열린사회 자문위원장과 광명엄마학교의 발행인으로도 활약한 경력이 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김경표 원장을 만나다

“진실된 삶의 자세를 갖고 세계를 무대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한대학교는 국내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께서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삼각벨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해줄 수 있는 문화, 예술, 생명공학 관련 분야를 세계 100개 대학과 공유하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신한인 모두가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동일한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한다면 대학이 변화하고, 나아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세계가 변화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신한대의 식구로서 목표를 이루가는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오소영 기자〉



신한대학교와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삶을 영위해감에 있어 늘 좋은 생각으로 접근해 갈 때 특별한 인연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 신한대학교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경기도 북부에 위치해 최고의 전통과 우수학생 유치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평생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신한대학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화, 예술, 관광 등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학교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계시는 강성종 전 이사장께서 우리 파주 영어마을과 헤이리마을, 임진각, 신한대학교를 묶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시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신한대학교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2월 평생교육협력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진흥원 파주캠프를 활용하여 신한대학교의 공연예술학과와 연계해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생철학 및 재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검도 공인 4단을 취득하면서 주어진 진검에 좌우명 '진실된 삶'을 새겼습니다. 진실되게 행한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한 달, 10년, 결국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가, 수필가, 기관장 어느 자리에 있던 언제나 '진실'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신한인들도 진실의 가치를 중히 여기고 다양한 사회, 학습 경험을 통해 건강한 미래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저도 이제 신한인임을

을 천명합니다.

우리 신한인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포부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동아리 활동, 인간관계 등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여 행한다면, 지금 하는 일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 이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신평장학회,
무봉리 순대국
김종복 회장 인터뷰

미래를 응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꿈을 응원하고, 다른 사람이 꿈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진 신평장학회는, 2003년에 발족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취적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그 신평 장학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온 무봉리 토종 순대국의 김종복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신한대학교 인근 카페에서 직접 만난 김종복 회장을 보며, 그의 나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기자의 첫 인상이었다.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커피를 즐기는 김종복 회장은, 삶의 경험에 따른 여유와 현대적인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었다.



Interview



지속적으로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 **김종복 회장** 사실, 내가 기부를 하는 이유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내가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그것이 한이 되었을 뿐이다. 시대가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려운 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배우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배움을 한으로 남기는 학생이 없으면 했다. 신한대학교에 기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는 이미 기부를 진행하고 있었다.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규모가 커졌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김종복 회장은 무언가를 바라고 기부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며 웃었다.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 지금같이 된 것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신한대학교는 조금씩 경기 북부의 교육 허브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혹시, 이러한 신한대학교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기부자로서 학교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 **김종복 회장** 학교가 더욱 성장하여 더 좋은 가르침을 주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자신의 꿈을 기르는 것. 그리고 이사장님 등 학교 관계자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다.

학교 관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김종복 회장은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다니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종복 회장과 신한대학교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재직 중에도 열심히 다니셨다고 들었다. 늦은 나이에 또 다시 한번 배움을 청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가?

☑ **김종복 회장** 사실 전부터 신한대학교에 애정이 있었고, 학교의 설립자님과도 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도 좋은 분이시고, 마침 신한대학교에 평생교육원 과정이 생겼다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신한대학교 학생들, 더 나아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 **김종복 회장**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청년들의 앞날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열심히 살고, 잘 살기를 바랄 뿐이다.

요즘 신한대학교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창업'이다. 본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 **김종복 회장** 나는 보통 말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속한다. 14살에 먹고 살 길을 찾아 무작정 의정부로 올라와, 맨 땅에서부터 시작했다. 영화를 보면 나오는 '넝마주이' 있지 않은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식업을 전전했으나, 무엇 하나 큰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

나 사람들의 취향을 조사하고, 시대 상황에 맞추어 노력한 결과 '순대국'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여기 까지 오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다. 시대가 다르니 나와 같은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간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의정부에서 가업을 일구었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도 클 것 같다. 혹시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바라는 것이 있는가?

☑ **김종복 회장**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시장님이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사업 발전에 투자했듯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투자하신 분이 아닌가.



김종복 회장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며 누군가가 신경 쓸 만한 일도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덕분에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미래를 응원하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 김종복 회장에게 학생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사진협조 - 무봉리 순대국
<박현규 기자>

21C는 SHINHAN Super-Versity 시대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신한대 - (주)한국코치협회 산학협력협약 체결 코치형 리더 육성·코칭인증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기로

신한대학교는 3월 23일 (주)한국코치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각 분야별 KAC 및 KPC 전문 코치 자격증 이수과정 개설 등 코치형 리더의 육성에 협력하고 코칭인증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신한대에서 유보선 부총장, 장용운 대외협력처장, 서한고 대외협력부처장, 김성후 인재개발처장, 최경서 인재개발센터장, 김정훈 취창업지원센터장, 이태정 학생상담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주)한국코치협회에서는 김재우 회장, 강용수 부회장, 윤경희 이사, 박동진 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현규 기자>



신한대학교 공연분과 신입생활영공연 공연동아리연합, 또 다른 도약 <ASH>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지하 2층 원형극장에서 공연분과 신입생활영공연 <ASH>가 무대에 올랐다. ASH는 공연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하는 공연으로 제 1,2회<BASH>에 이어 3번째 공연이다. 공연에는 힙합동아리 '악당(VILLAIN)', 어쿠스틱 동아리 '소리패(SORIPAE)', 댄스동아리 '흥(HEUNG)'이 참가했다. 이들은 각자의 예술성과 개성을 살려 신입생 환영을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공연은 1,2부로 나뉘져 진행되었으며 진행에는 동아리연합회장 이지희 학생과 종교분과장 문성균 학생이 수고 해주었다. 1부는 공법행정학과 조우진 학생의 '사랑하자' 외 8개 곡, 2부는 사회복지학과 김범중 학생의 'Stair+Talkin' that' 외 8개의 곡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순서는 힙합동아리 악당의 멤버들이 준비한 'Cypher'를 끝으로 신입생활영공연의 막을 내렸다.

<박은영 기자>



섬유소재공학과, 관련계열 장학금 최다 수혜 관련학과 있는 전국 13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아

섬유소재공학과 재학생 4명이 섬유산업관련 단체와 업계로부터 모두 2,4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학과측은 3학년 김선우 학생 등 4명의 학생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과 영신물산이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3월 7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섬유패션 업계, 학계, 장학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신한대학교가 전국 섬유소재공학과가 있는 13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학과장 김의화 교수는 "다른 대학보다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학업에 더욱 열중하여 미래의 섬유산업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박현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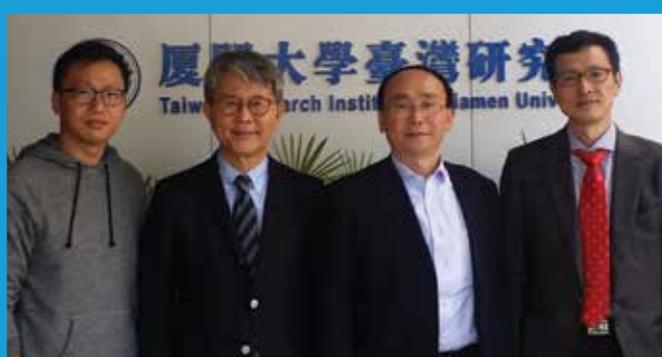


국제어학과, 어문계학과 취업률 전국 2위 돌풍 '졸업생 = 취업준비생 공식은 없다'

신한대 국제어학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고등기관 취업률 통계 분석에서 취업률 80%로 전국 어문계 학과 중 취업률 2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1위인 고려대와의 차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취업률 80%는 군 입대와 대학원 진학을 제외하고 사실상 100% 취업을 의미한다. 국제어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영어와 중국어 어학능력 및 문화 간 소통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체 현장경험을 위해서 실용성에 중점을 둔 전공수업과 현지학기제, 국내외 인턴십, 전공학술제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과측은 졸업생=취업준비생이라는 공식을 깨고 성공적인 취업자가 되도록 졸업생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MOU 중국으로 확대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중국 샤먼대학교 대만연구소, 국립대만대학교 중국연구소와 학술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약(MOU) 체결에 합의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협약은 샤먼대학교 및 국립대만대학교의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대학교는 2개 기관과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등 양안관계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연구 교류가 가능해져 연구 분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규 기자>

병무 홍보의 날 맞아 재학생 맞춤식 병무 상담 진행

현재 1,800명의 학생 예비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신한대학교 예비군 대대는 2016년 직장예비군부대 정기 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제6군단 사령부 부대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신한대학교는 학생 병무 홍보의 날을 맞이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 16일 10시부터 14시까지 에벤에셀관 앞에서 병역관련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맞춤식 병무 상담을 진행했다. 예비군 복무, 현역 모집 안내를 개인별 맞춤식으로 상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티켓 및 병역의무 리플릿 등을 배부했다. 많은 재학생들이 병무 홍보의 날을 맞아 맞춤식 상담을 통해 병무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익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소영 기자>



대학 캠퍼스에서 창업을 준비하자 신한대 취창업센터 의정부·동두천 캠퍼스에 청년 벤처존 마련

신한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는 그동안 대학생창업교육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신한인' 창업에 적극 나섰다. 창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지원하여 재학기간 중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창업경진대회 우수 입상자 및 대학생창업 희망 학생에게 의정부 캠퍼스와 동두천 캠퍼스 2곳에 창업 보증자리 벤처존을 마련한 것이다. 벤처존은 지난 달 28일 의정부캠퍼스 호림관에 문을 열었으며 동두천캠퍼스에는 베데스다관에 5월 말까지 창업 공간이 마련된다. 현재 다양한 성과를 이룬 '신한벤처기업'들이 의정부캠퍼스에 입주하였으며, 센터측은 창업을 원하는 동아리와 개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올해 안에 창업동아리를 20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개가 실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상반기 영어기반 인턴십 프로그램 개강 신한대생 6명 미2사단에서 6개월간 근무

신한대학교 주관의 영어기반 인턴십 프로그램이 3월 6일 시작되었다. 신한대는 이날 6명의 제1기 인턴학생을 선발, 1주일 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미2사단에 8월까지 6개월 간 파견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한대가 학생들의 전공기반 영어 역량을 강화해 영어 직무 능력을 높이고 미국의 실제 근무 환경을 체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진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미 친선교류를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기간동안 미군부대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며 마케팅, 재무관리, 공보실, 기획실, 스포츠 레크레이션 센터, 실내외 활동 레크레이션 분야를 보조하게 된다. 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전적 영어와 실무를 동시에 체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 기자>



망월사역 스크린도어 6월에 설치된다 신한대생 통학 관문 사고 방지 효과 클 듯

신한대학생들의 주요 통학 관문인 수도권 전철 1호선 망월사역 스크린도어가 오는 6월 설치된다. 망월사역 관계자는 도봉역을 포함해 유동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도봉관내 5개역의 스크린도어 공사가 지난해 10월 착공, 8개월 만인 오는 6월 설치가 완료된다고 3월 10일 밝혔다. 현재 스크린도어가 없는 128개 역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인 철도관리공단 수도권본부는 망월사역을 최우선 설치그룹으로 선정해 타 지역 보다 우선 착공하였다.

<박미소 기자>

KB 국민은행, 신한대에 발전기금 1억2천만원 전달

KB 국민은행이 신한대학교에 학교발전기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KB 국민은행 북부지역 영업그룹 이우열 대표는 2월 24일 의정부 캠퍼스 본관 2층 설립자실에서 김병욱 총장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신한대학이 종합대학 완성년도를 맞아 수도권의 우수대학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한대학교에서 김 총장을 비롯해 유보선 부총장, 유병엽 미래전략 본부장, 김상욱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으며 KB 국민은행에서는 이우열 대표를 비롯해 김영혜 북부1지역 본부장, 최천규 도봉 지점장, 민병규 신한대 출장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민지 기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3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hinHan University

- | | | | | | | | |
|------|-----------|-----|-----------|-----|-----------|-----------------|----------|
| 최에스터 | 뷰티헬스전공 | 유병엽 | 대학본부 | 변희진 | 산업디자인전공 | 조상민 | 시설지원팀 |
| 김보희 |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이광규 | 컴퓨터공학전공 | 서수연 | 뷰티헬스전공 | 조성운 | 시설지원팀 |
| 송노연 | 사회복지학과 | 이정규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송진희 | 컴퓨터공학전공 | 장은주 | 유아교육과 |
| 송정애 | 사회복지학과 | 임원선 | 사회복지학과 | 신현정 | 컴퓨터공학전공 | 정은정 | 평생학습증심대학 |
| 조영숙 | 유아교육과 | 장인봉 | 공법행정과 | 이영기 | 기획팀 | 신명장학회 | |
| 권태순 | 섬유소재공학과 | 장정순 | 사회복지학과 | 이청재 | 치기공학과 | 아이들과미래 | |
| 박호균 | 컴퓨터공학전공 | 전현주 | 국제어학과 | 조성심 | 사회복지학과 | 이석재 | |
| 신현근 | 에너지환경공학과 | 황재석 | 에너지환경공학과 | 최화식 | 임상병리학과 | 대성미장 | |
| 박문찬 | 안경광학전공 | 고영아 | 국제어학과 | 한수범 |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도서출판희소 | |
| 서장훈 | 임상병리학과 | 김경희 | 유아교육과 | 황만수 | 컴퓨터공학전공 | 시흥의료협동조합우리들요양병원 | |
| 권용일 | 자동차공학과 | 박노현 | 관리운영처 | 황태용 | 취창업지원센터 | 장성호세무사사무실 | |
| 김유희 | 컴퓨터공학전공 | 박현수 | 공간디자인전공 | 김봉건 | 입학사정팀 | 조일환 | |
| 김인숙 | 전자공학전공 | 유은경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김주현 | 입학총괄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경기도회 | |
| 김향선 | 사회복지학과 | 윤태민 | 유아교육과 | 김창희 | 학생상담센터 | 메디안병원 | |
| 유지오 | 호텔조리전공 | 이기석 | 자동차공학과 | 이대성 | 정보화지원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_서울지역본부 | |
| 이영애 | 교양학부 | 이대홍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이은정 | 호텔조리전공 | 경기도안경사회 | |
| 이종탁 | 언론학과 | 곽영암 |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경세훈 | 안경광학전공 | 윤창순 | |
| 이태정 | 치기공학과 | 김민정 | 뷰티헬스전공 | 최병호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최영길 | |
| 이현종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김선영 | 에너지환경공학과 | 홍경옥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사)대한안경사협회 | |
| 진기현 | 안경광학전공 | 김용섭 | 교육실 | 김문규 | 중앙도서관 | 김찬호 | |
| 최창영 | 국제어학과 | 박용민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강대원 | 시설지원팀 | 민음치과기공소 | |
| 조소희 | 국제어학과 | 박정우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강경원 | 유아교육과 | 서울교경치과기공소 | |
| 윤호숙 | 임상병리학과 | 박주원 | 유아교육과 | 강제이 | 국제교류3팀 | 서울시치과위생사회 | |
| 김인섭 | 교무연구팀 | 배시애 | 교양학부 | 고광철 | 시설지원팀 | 유아교육과 동문회 | |
| 강중오 | 치위생학과 | 서종원 | 임상병리학과 | 김옥희 | 에너지환경공학과 | CU동두천신한대캠퍼스 | |
| 류현욱 |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송기상 | 대외협력팀 | 배영금 | 국제어학과 | 김진상 | |
| 박소정 | 뷰티헬스전공 | 오병철 | 공간디자인전공 | 우두한 | 시설지원팀 | 송내교회 | |
| 박영심 | 식품영양전공 | 오이균 | 공법행정과 | 이강석 | 시설지원팀 | 권영길 | |
| 박현철 | 산업디자인전공 | 이금숙 | 사회복지학과 | 이남현 | 교학팀 | 성광유리 | |
| 신종우 | 치기공학과 | 이기찬 | 교양학부 | 임효진 | 대외협력팀 | 신홍신망애복지원 | |
| 하성용 | 자동차공학과 | 이남전 | 교학팀 | 전영주 | 홍보팀 | 김민혁 | |
| 황경숙 | 치기공학과 | 이윤배 | 뷰티헬스 전공 | 강수철 | 학생지원팀 | 박현동 | |
| 조규봉 | 임상병리학과 | 임승희 | 사회복지학과 | 이승영 | 산학협력단 | 고려정보기술(주) | |
| 신경환 |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전범주 | 에너지환경공학과 | 임민경 | 간호학과 | 박영주 | |
| 이육현 | 컴퓨터공학전공 | 전선범 | 시설지원팀 | 김종록 | 시설지원팀 | 옥경원 | |
| 이보고 | 국제어학과 | 홍수희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윤상근 | 교육총괄팀 | 유중원 | |
| 황보상원 | 공법행정과 | 송은홍 | 임상병리학과 | 조혜선 | 유아교육과 | 배승룡 | |
| 권영일 | 임상병리학과 | 신용철 | 임상병리학과 | 김현숙 | 수업학적팀 | 문경수 | |
| 김기순 | 산업디자인전공 | 최승구 | 임상병리학과 | 기획팀 | 기획팀 | 한경아 | |
| 김남용 | 공법행정과 | 김남중 | 치기공학과 | 변미현 | 홍보팀 | | |
| 박호철 | 공간디자인전공 | 김종만 | 교육총괄팀 | 이동원 | 학생지원팀 | | |
| 오홍진 |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류재경 | 치기공학과 | 이민희 | 홍보팀 | | |

지금은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적사항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중복체크 가능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 ※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주소	(주택)		(TEL)
		(직장)		(TEL)
E-mail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 주택	□ 직장	기부 추천인	
약정	총액	금()원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부금 용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자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CMS	CMS(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자동출금해가는 방식)		
		결제일	□ 일	결제은행
		결제계좌번호		
	예금주명	□ 기부자명과 동일 □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아래내용 작성)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무통장 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국제교류팀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3 (Fax 3169)
- 우편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7.05 / 190호

편집후기

박은영 편집장

캠퍼스에 벚꽃이 피어날 때를 맞춰 190호를 발행하게 되어 기쁘다. 2017년 첫 호이면서 편집장을 맡고 처음 발간하게 된 '톡톡'이라 더욱 정이 가는 것 같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배우면서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신한대학교 교내외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기사, 좋은 취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목표인 1년 4권 발행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민지 기자

올해 처음 발간하는 신한톡톡이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기분이 좋다. 정식 기자가 되어 처음으로 맡는 기사라 부담과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기자로써 한걸음 전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첫 단추를 잘 넣은 만큼 남은 호들도 무사히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미흡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다른 기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수정 기자

기사를 하나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취재하고, 정보를 얻고, 기사를 작성해보면서 남들보다 많이 미숙하고 서툴러서 한 순간 한 순간 고되기도 했다. 그랬던 만큼 옆에서 교수님과 선배, 동기들의 조언과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누가 어려움을 느낄 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미소 기자

개강을 하고 3학년이 되듯, 자연스럽게 신한톡톡이 발간됐다. 이번 190호에는 우리 국제어학과 관련 기사가 들어가서 왠지 뿌듯하게 느껴진다. 출간되고 나서 어서 글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타 학과 학생들도 자신의 학과가 기사에 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신한톡톡을 봤으면 싶다.

박현규 기자

전역 후 첫 톡톡, 다시 펜을 들고 자판을 두드리는 과정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즐거웠다. 군 생활동안 떨어진 감이 다시 잡히기까지는 아직 기사를 좀 더 써 봐야겠지만, 그래도 차마 남 보여주기 부끄러운 글을 쓰지는 않았다. 다 자부한다.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언젠간 남에게 자랑삼아 보여줄 글을 쓰게 될지도 모르지. 언젠가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이민영 기자

벌써 신문사를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2017년이 되었다. 아직도 기사를 쓸 때마다 새롭고 낯설기도 하지만 올해 들어 처음 쓰게 된 기사인 만큼 더욱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호에는 색다르고 재미있는 기사를 써보고 싶다.

오소영 기자

이번 신한톡톡은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나오게 되었다. 또 다른 환경에서 2017년 첫 신한톡톡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생한 모든 기자들과 교수님께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더불어 올해는 정기자가 된 만큼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만을 신한톡톡에 담아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다음 호에서는 나의 미숙한 모습은 없길 바란다.



더 센!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셔널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